

청양담소

마을공동체신문

발행처 :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제보 : cymaeul@naver.com
 만든 사람 : 청양군 마을미디어활동가(기자단·영상기획단)
 제12호 발행일 : 2023년 9월 11일

제 12 호
 2023년 가을호



생각으로 그린 ‘어느 가을날’

작가소개

청양군 청양읍 백세공원이예요. 연 날리는 가족들, 언니랑 산책하는 강아지, 무슨 얘기를 하시나?
 도란도란 할머니와 할아버지, 다 함께 가을을 맞았어요. 나는 단풍나무 밑에서 그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 청양초등학교 김예인(13)

지면안내

- 1면 어느 가을날
- 2면 한결자연학교, 힐링·복합공간으로의 꿈
- 3면 여름을 보내는 마음/가을(시)/가을꽃(시)
- 4면 청양군청년네트워크, 조성희단장
- 5면 푸드플랜출하농가소개/흑구,백구(시)
- 6면 키오스크현장학습/서울나들이(영상)
- 7면 청남면 수해 이후, 지금은?
- 8면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소식



탐방: 마을교육공동체

힐링, 복합공간으로의 꿈



한결 이세영



한결자연학교, 담연

Q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제 이름은 이세영이고 호는 한결입니다. 2008년에 청양에 와서 '한결자연학교'를 열었습니다. 15~16년째 체험학습장 대표를 맡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봉면이 고향이며, 외지에 나갔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Q 마을교사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을공동체, 마을교사 발족부터 시작해 벌써 6~7년이 되었네요. 초창기부터 교육청 예산이 편성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프로그램으로 천연화장품, 가죽공예, 한지공예, 지역 먹거리 아동 요리 등 다양하게 운영합니다. 지금은 청양군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담연'을 짓게 된 동기와 비전은?

담연은 한옥카페예요, 일반적인 카페가 아니라 '자연과 건강이 함께하는 한결자연학교'가 슬로건이죠. 자연과 건강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농장 회원들에게 친환경을 강조합니다. 대중적인 것보다는, '건강과 관계된 생산물과 체험을 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진행합니다. 담연 주변은 16년 동안 살충제와 제초제를 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과 단체의 체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힐링 할 수 있는 쉼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식단도 건강에 맞추고 교육장도 한옥으로 지었습니다. 체험도 하고 차도 마시며, 다도교육과 체육활동도 하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출강도 하고 있어요.

비전은 땅이 1,700평인데 주변 땅을 더 늘려서 허브, 꽃, 농산물을 심고 경관조경(치유정원)을 하여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 지친 심신이 힐링 되는 공간으로의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Q 마을교사로서 아쉬운 점이나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아쉬운 점은 농촌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과 지역민, 출향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리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점은 교육청 예산이 더 많아져서 재능기부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활동가들의 활동비와 감사비가 올라간다면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더 나아지겠죠?

중간 조직이 서류정리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인적 네트워크가 되면 좋겠습니다.

Q 청양의 장점(발전가능성)은 무엇인가요?

청양 사람들은 배움에 대한 욕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열정이 높습니다. 곳곳에 인재가 많다는 것을 느끼죠. 지역을 위해 쓸 수만 있다면, 발전과 이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일단 먼저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골도 경관이 편안하네', '독특한 메뉴가 있네', '청양도 와볼 만한 곳이네', '기반을 잡고 사네' 등 이러한 느낌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 보조금 없이 대출로 시작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많은데 중요한 것은 건물과 내부시설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으면 지속성이 없습니다. 보조금이 없어도 역량을 키워서 자립할 수 있게 하고 확대시키면 됩니다.

청양은 기회의 땅입니다. '조그맣게 시작하고 생각과 비전을 보이면 된다.' 학생들은 학교가 유명해져 전학을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해결된다 해도 먹고 살 거리가 없고, 지원이 농업에만 집중되어 있어 너무 열악하죠. 결론은 농업 외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사람에 투자하자'는 것이죠. 미술, 웹툰작가 등 작업장을 만들어준다든가 농가를 고쳐준다든가, 자리 잡고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서종필 마을기자〉

제호이야기

청양담소

청양담소는 웃으며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청양을 담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양의 이야기를 담았소의 줄인 말로 청양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신문, 주민의 소리를 담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신문으로 마을기자단이 만들어갑니다.

청양담소는 계간지로 2023년 04월 봄호, 07월 여름호, 09월 가을호, 11월 겨울호로 발행합니다.

마을기자단이 만드는 청양담소는 주민들의 기고도 받고 있으니 메일(cymaeul@naver.com)또는 전화 (041-943-991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을 보내는 마음



두꺼운 외투를 옷장에 넣으며 봄이 왔음을 알았고 커다란 구름에 비친 복숭아빛 노을을 봤을 때 여름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열어놓은 창문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잠이 깼을 때 이제 여름이 지났구나, 알았습니다. 지난여름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안녕히 지내셨나요? 저는 제법 바쁘게 지냈습니다. 틈만 나면 상념에 빠져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자책하는 저이기에 상념을 없애고자 정신없이 지냈네요. 바다를 보러 다녀오고 사진전도 다녀오고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도 다녀왔으며, 책을 읽고 노래를 들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을이네요. 노랫말처럼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불뾰를 수 있겠지만 찾아온 가을,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청양읍 송방리, 안진환 마을기자〉



독자기고

가을

〈강은지-청양읍〉

가을이 버석거린다
여름 내내 축축했던 것이 말라 부서진다
시원한 바람에선 오래된 노래가 들리는 것 같다

따뜻한 햇볕에 우리는 우리를 탈탈 털어 빨랫줄에 널어둔다
뜨거웠던 여름 공기가 빠져나가면 시원한 공기가 폐부를 간질이고
여름 내내 힘을 쏟느라 지친 몸은 가을로 회복된다
여름 내내 몸집을 부풀린 곡식과 열매를 먹으면
나는 가을이 된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몸집을 부풀린 소리에 집중하다보면
노래가 되었다가 이야기가 되었다가 울음이 되기도 하고
소리를 찾아 기웃거리다가
침대 밑에서 먼지 먹은 머리끈과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하기도 한다
가을이 되어도 일기장은 물기를 머금고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만 같다

가을엔 일기를 쓴다
적어두지 않은 가을은 사라질 것만 같아서
잘 마른 단풍을 끼워 놓기도 한다
일기장엔 울음을 그친 귀뚜라미가
여름내 목을 놓은 매미의 무덤을 베고 곤히 잠들어있다

가을이 왔다 간다
잠시 문을 두드리곤 냄새만 두고 가버린다
돌아오는 여름의 끝엔 꼭 문을 열어두어야겠다



독자기고



인연의 끝은 어디에,

꽃이 필 때 잎은 없고, 잎이 자랄 때 꽃은 피지 않는다. 혹여 다음 해에는 꽃을 볼 수 있을까, 잎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 해를 기다린다.

남양면 금천리, 큰 장독 앞에 연보라 상사화가 소담하게 피었다.

〈박수행-남양면〉



청양군 청년네트워크, 조성취 단장을 만나다.



Q 청양군 청년네트워크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청양군 청년 네트워크는 2019년에 결성되었습니다.

청양에 거주하고, 주소를 두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만18세~45세인 분들을 모아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네트워크는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찾아내고 제안하며,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민관협치의 파트너로 적극 협조하여 최종적으로 청양군 청년의 행복과 공동체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Q 청년네트워크 활동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하자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소모임), 청년의 날 기념행사, 청년 동아리 활동 및 지원, 자격증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동아리 활동의 경우 현재 5개의 동아리를 신청받아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격증 지원사업으로는 ‘신활력플러스’와 함께 연계하여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제빵, 드론, 대형면허, 지게차 등 지정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증명하면 학원비와 응시료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9월 15일 청년의 날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달빛마켓과 함께 진행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청춘극장에서 디제잉(DJing, 디제이의 예술 행위)도

할 계획이라 많은 청년이 와서 함께 즐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Q 물품공유센터도 청년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양군 물품공유센터는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 2021년 10월 13일에 개소했습니다. 현재 캠핑용품 20여 종과 스타일러, 스텐다리미, 게임기, 전기드릴세트 등 45개 이상의 다양한 물품을 물품 가격의 1~3%(일별)를 내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물품을 들여놓고 많은 군민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직 물품 공유센터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캠핑용품을 대여하러 많이들 오시기는 합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에 대비해서 대형 선풍기나 발전기 등을 구비 해, 이번 장마처럼 수해가 발생하거나 더위가 심해지면 물품공유센터가 수해복구처럼 청양 군민들을 도와 드리는 일에 앞장서서 물건을 빌려드릴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웠던 점과 앞으로 청년네트워크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어려웠던 점... 확실합니다. 아무래도 청년네트워크의 연령대가 만18~45세이다 보니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 아이가 어린 경우가 많아 활동이 미비합니다. 20~30대가 활발히 활동해 줘야 활동이 돌고 운영이 조금 쉬울 텐데, 학생들은 학업에 매진해야 하고 또 사회 초년생들은 취업 준비 혹은 신입사원으로서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곳에 힘을 쏟을 시간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청년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 오래도록 이 네트워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면 그렇게 일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청년들이 다 같이 소모임 활동을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청년 네트워크의 비전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청춘거리 관리 위탁사업을 청년네트워크가 가져오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있는 청년 예산을 가지고 더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청년들에게 더욱더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많은 청년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청년네트워크의 비전입니다. 다양한 청양의 청년들과 함께 청양에서 활동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서한빈 마을기자〉

푸드플랜 출하농가소개

박명자씨의 금싸라기 하루

박명자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30분 후에는

정산거점에 도착, 농산물을 출하한다.

농산물을 포장하고 가격표를 부착하면 30분이

울썩 지난다. 그리고는 다시 밭으로 돌아와

농작물을 살핀 후, 일터로 출근한다.

오후 3시에 퇴근하면, 다시 밭으로 와

다음날 출하할 농작물들을 살피는 것이

여성농업인 박명자씨의 하루다.



축적된 경험을 교훈 삼다

박명자씨는 1975년에 결혼을 하면서 청양에 정착하였다. 맏이로서 부모님의 농사 짓는 모습을 어깨 너머로 자연스레 배웠지만, 결혼 후 모내기 등 본격적인 농사를 배웠다. 그러던 중 생활개선회의 설명회를 통해 ‘푸드플랜’을 접하였다. 처음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지인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푸드플랜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농산물을 출하할 때는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어 각자 냈었는데 잘 팔리지 않았다. 골똥히 고민을 하여 가지고추, 비타민고추, 청양고추 등 고추라는 작물 안에서도 다양한 품종의 고추를 재배해 하나의 묶음으로 판매를 시도해 보았다. 같은 종류의 고추만 내었을 때보다 소비자의 반응이 좋다는 것을 매출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비법을 더하자면, 싱싱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적은 양이라도 그날그날 채취할 수 있는 만큼의 농산물을 재배·수확하여 출하하게 되었다. 박명자씨는 “한 해 한 해 배우니 나아지더라고요, 올해는 이렇게 됐으

니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며, 해를 넘길수록 농법과 판매전략에 대한 요령이 축적되어 박명자씨의 자산이 되었다고 한다.

다양한 포장재 환영

박명자씨는 농산물 출하 시 다양한 포장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찰나에 새로운 포장재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포장재 몇 가지를 구매해보았다. 현재까지는 고구마줄기, 절임배추, 무 등을 포장재에 담아 출하했다. 보기에 깨끗한 농작물이 인기가 많다는 것은 이미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익힌 바였다. 새로운 포장재를 이용하면, 농산물의 상품 가치가 높아지고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매한 포장재를 다 써보지는 못했지만, 출하 예정이었던 건나물을 포장할 수 있는 포장재 등이 생겨서 좋고, 앞으로 더 다양한 포장재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정직하게 지은 농사, 가족이웃과 나누어 먹고, 용돈도 벌고

박명자씨는 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배추에 풋물(진딧물의 방언)이 들기도 하고 판매되지 못하는 상품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강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박명자씨가 어렸을 적에는 풍족함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이제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 농작물을 가족, 이웃과 풍족하게 나누어 먹는 즐거움에 농사짓는 기쁨이 배가 된다고 한다. 가족, 이웃과 나눠 먹고 소비자들에게도 본인이 키운 건강한 농작물을 판매할 수 있으니 ‘푸드플랜’을 하는 재미를 느낀다고 한다.

〈강다솔 마을기자〉



흑구, 백구

〈김남선 마을기자〉



초록이 눈부신 시골길
발걸음 소리 날 때마다
농사일 마을마다 바쁘구나!

비 갠 날 높은 산 무지개
마을 건너 저편 푸른 산
황금 들판 그득 채우소서

생계가 막막하다고 말하지 마라
맛있는 나물이 동산에
텃밭에 가득하다네

초록이 눈부신 시골길
발짝 소리 날 때마다
멍 멍 멍
살랑살랑
다음날 다 다음날도

멍 멍 멍
흔들흔들
흑구 백구 신난다
내 맘 덩달아 춤춘다

연초록 시골길
발짝 소리 날 때마다
멍 멍 멍
살랑살랑
다음날
다다음날도
멍 멍 멍
흔들흔들
흑구 백구 신난다
내 맘 덩달아 춤춘다

〈키오스크 현장 체험 학습〉 청양군 문화원 스마트폰 활용 교육 참여

디지털 사회, 나도 키오스크와 대화하고 싶다

청양문화원 '2023생활문화활성화사업',
실버동아리 '스마트한 공간' 어른들이 고속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에 있는 센트럴시티에
키오스크 체험 학습을 다녀오다.

무인기계가 일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세상에서 주변 가게를 둘러보면 못 보던 걸 보게 됩니다. 바로 키오스크(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정보 단말기. 주로 정부 기관이나 은행, 백화점, 전시장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체로 터치스크린 방식을 사용한다.) 라는 무인 결제 시스템입니다.

키오스크의 유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디지털 세대가 아닌 어른들에게는, 물건을 사고 싶어도 못 사게 하는 거대한 벽이라는 점입니다. 기계에서는 무엇인가 하라는데 잘 모르겠고 뒤에서는 사람이 기다리면서 재촉하는 상황을 몇 번 마주하니 이제는 키오스크(무인단말기)라는 말만 들어도 걱정이 앞서고 물건을 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어른들이 평생 키오스크(무인단말기)를 피하며 살 순 없다고 생각하여, 청양문화원 프로그램인 '2023 생활문화활성화사업'에서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어르신 각자 본인의 스마트폰에 직접 고속버스앱을 설치하여 서울행 표를 예매했습니다. 승차 시엔

핸드폰에 저장된 승차권을 가지고 스스로 무인 기계에 대고 승차하였습니다. 서울 센트럴 파크에 안전하게 도착하여 맛있는 점심 식사 후 자신이 먹은 음식을 직접 결제해 보았지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센트럴시티에 있는 다양한 키오스크 체험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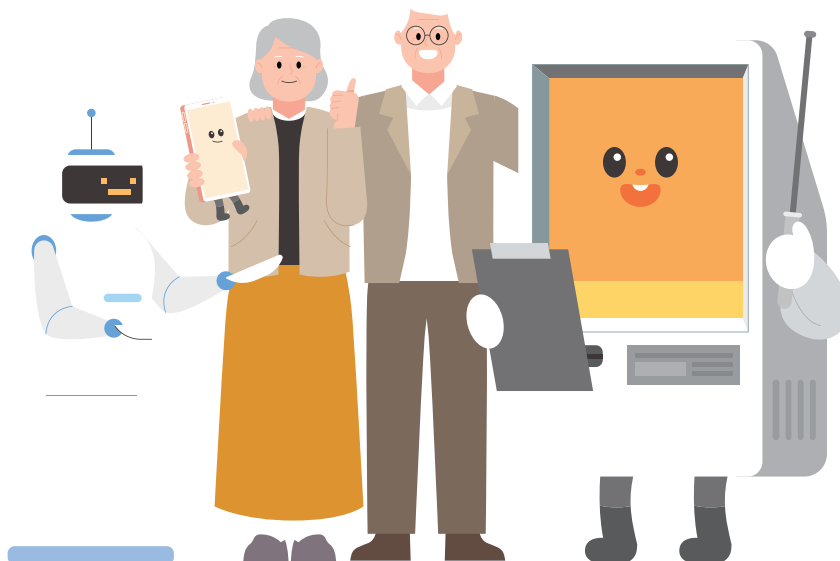
예를 들어 무인 단말기를 이용해 차표 시간 알아보기, 쿼알(QR)코드를 이용해 음식을 주문해보기, 음료수자판기에서 원하는 음료수를 카드로 뽑아보기, 내가 먹고 싶은 커피를 주문해보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어른들은 신기해하고 참으로 좋아하셨습니다.

“경태야 다음에 또 가자~~” 저를 흐뭇하게 하는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 어른들이 계속 무인기계로 바뀌는 현시대의 흐름에 불편한 게 많다는 것을 현장체험 학습을 다녀오면서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체험처럼 조금씩, 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마일강사 김경태는 노력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또한 “손주들과 함께 여행 가서 음료수 하나라도 무인기계를 이용해 직접 구매할 수 있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고 더욱더 친해지겠다.”고 하시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 행복하다.”고 고백 해주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에 함께 가기로 약속해봅니다.

〈김경태 마을기자〉



청양담소
마을공동체신문

가을호

마을영상기획단
김경태 활동가



영상으로 만나는
'청양담소'



청양군 마을 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을 통해 발굴된 김경태 마을활동가가 제작한 영상기사다. 노년층 디지털 교육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강의를 수강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서울행 버스표 발급과 음료 주문 등 직접 현장체험학습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 영상은 QR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청남면 수해 이후, 지금은?

청양군 청남면은 지난 7월 15일 집중 폭우로 인해 대규모 수해를 입었다. 청양군 평균 강우량 702mm, 특히 산동(칠갑산 동쪽) 4개 면에 집중되었다. 그중 청남면이 837mm로 인양리, 아산리, 왕진리, 대흥리, 동강리가 침수되었다. 지방하천 제방 붕괴로 주택 15동, 농경지 224ha, 비닐하우스 1,698동, 축사 및 주변 시설물이 물에 잠겼다. 제방은 15m의 높이에 70m의 넓이었으나, 불어나는 홍수에 약한 부분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기 때문이다.

155세대 200여 명이 넘는 수해 주민은 청남초등학교 및 마을회관 등에 대피하였다. 청남면 다목적 회관에 현장 지휘 본부 및 상황실을 설치하여, 이재민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복구에 힘썼다.

전국 각지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이 이어졌다. 7월 16부터 8월 말까지 연인원 1만 5천여 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갔다. 군인과 군 의료팀, 경찰, 공무원과 민간단체의 참여, 그리고 중장비 등 526대가 투입되었다. 개인 봉사자의 감동적인 사례가 지역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다. 연고도 없는 청양에 와 폭염 속에서 땀을 흘리는 개인 봉사자들은 마을 회관에 머물며 장기간 봉사를 하였다.

예비군 지휘관 민병걸

청남면·장평면 예비군 민병걸 중대장은 수해 시 군 장병이 수해 복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상부에 요청하여, 수해 복구 16일 동안 군병력 1만여 명이 지원되었다. 충남지역 방위를 담당하는 보병 32사단, 203 특공여단, 3공수여단, 2작전사령부 등이다. 군부대 중장비가 투입되고 의료부대가 참여하여, 지역주민과 수해 복구 장병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였다. 장병들은 청남면의 비닐하우스농가가 집중된 인양리를 비롯한 여러 마을에서, 수해 복구 우선



순위에 따라 제거, 수거, 정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00마을에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도 수해를 입었지만, 수해복구 신청을 몰랐다. 이를 안 민병걸 중대장은 청양지역의 상군 중대장과 장병들을 모았다. 비닐하우스에 뒤죽박죽된 폐기물을 정리하고, 악취와 고인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였다. 젖은 생활용품과 도구를 정리하며, 늦은 시간까지 할머니를 도왔다.

1인 노인주택은 들여다보지 않으면 소외되기 쉬워 도로명별로 단위 부대를 지정하였다. 농가를 찾아가 농민의 요청을 듣고, 필요한 작업 내용과 도구를 판단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했다. 마치 작전을 수행하듯 대민봉사를 하였다. 장병들이 달라 붙어 영차영차 힘을 모은다. 비닐 하우스 안의 부러진 철 구조물과 뒤엉킨 관수 파이프를 철거하고, 진흙더미를 치웠다. 군부대 중장비는 물에 젖은 포장박스, 농장의

도구 등 무거운 것을 옮기고 정리한다. 힘쓴 만큼 보람이 땀으로 솟아났다. 특전 (3공수여단) 장병들은 특별했다. 농장 작업 중에 필요한 수레 등의 도구는 현장에서 똑딱 만들어 사용하고 농장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장비를 고쳐 사용 하기도 하고, 수리도 해드렸다. 역시 특전사 용사들은 일당백 능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고 작업 속도도 빨랐다.

악취와 폭염은 작업 현장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축사에서 흘러들어온 소똥과 폐기물이 뒤섞여 고인 물과 섞은 물에서 냄새가 나, 곳곳에서 악취가 진동했다. 이러한 현장에 폭염까지 이어졌고, 높은 습도는 사람들을 지치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수해복구는 계속되었다. 온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내부 작업 시에는 비닐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 환경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경험적 판단은 특전부대의 많은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복구 작업에 많은 군인이 참여해 준 것에 대해 “군인들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더운 날 폭염과 싸우고, 일하다 보면 악취와 구정물이 만만치 않았는데 힘들다 표현하지 않고 묵묵히 일해준 것에 정말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라고 이기수 이장은 말했다. 땀에, 더러워진 작업복에, 피부질환도 생겼다. 매일 세탁은 어떻게 할까, 국군 장병들에게 필요한

편의는 충분히 제공되고 부족함은 없었는지, 걱정스럽고 미안하다.

수해 복구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까?

복구 작업은 쉽지 않았다. 오염된 것을 치우는 것과 수해 입은 집기류, 작업 도구와 물품들은 대부분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새로 짓는 비닐 하우스 작업 일정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상금과 보험금이 일부 지급됐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인양리 6길을 둘러보았다. 토마토와 멜론이 주 생산지로 14농가 100여 개의 비닐하우스가 있다. 파이프 등 재활용도 할 수 없는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반면 농지는 행하다. 덩그러니 빈 하우스를 들여다보았다. 겹겹이 쌓여있는 침수의 흔적이 을씨년스럽게,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다. 장비, 작업 도구, 생활 가재, 농산물 부자재를 보니 어느 세월에 치우고 정리할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생계가 어렵거나 위급한 농가는 없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관에서, 봉사단체에서 꼼꼼히 살피고 지원해준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이 인다. 아직 복구가 끝나지 않은 곳은 현재 진행 중이다. 꾸준한 관심과 응원이 수해 주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전귀정 마을기자〉

※마을 주민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직접적인 마을 이름 언급은 자제하였습니다.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로고 변경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의 새로운 로고를 소개합니다!

Cheongyang Community Foundation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은 지난 6월 로고 개발 착수를 시작으로 약 3개월간 개발 방향 및 전략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로고를 개발했습니다.

신규 개발된 로고에는 청양군의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 달려가고자 하는 재단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로고는 청양군 농민과 재단의 상생을 표현했으며 파란색과 초록색을 주로 사용하여 청정 농촌인 청양을 상징했습니다.

로고는 임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사제안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4개 시안에 대한 임직원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로고를 선정했습니다. 투표는 8월 7일(월)부터 8월 9일(수)까지 3일간 재단 관내 사업장 3개소에서 진행되었고, 91.5%의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로고 개발은 재단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짐의 의미를 담아 진행되었는데, 앞으로 재단은 새로운 로고를 효율적으로 사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 업무표장 출원을 신청하여 지식재산 및 저작권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재단의 로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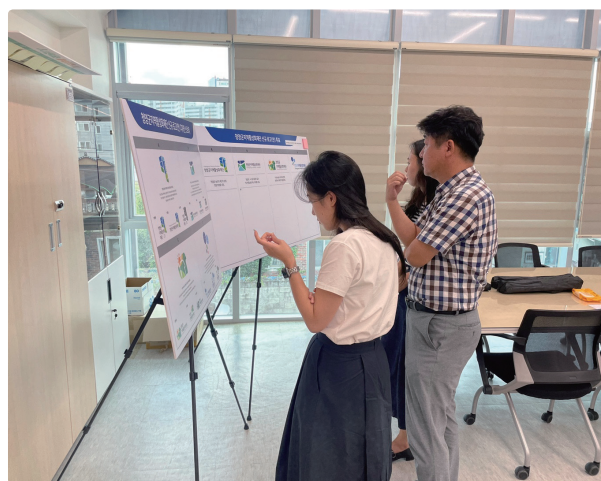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Cheongyang Community Foundation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신규 로고(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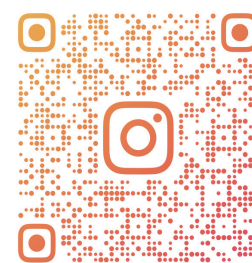
<재단 임직원 투표 전경>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주세요!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재단 인스타그램(@ccf_cheongyang)에서는 재단에서 진행되는 사업 및 교육 등 다양한 소식을 쉽고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CCF_CHEONGYANG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재단 인스타그램이 열려요